

단편_치킨이 뭐라고

한겨레 영화제작워크숍 63기 송우진

로그라인 : 모처럼의 휴일을 만끽한 승우. 자신과 달리 고된 하루를 보낸 아내 소희를 위로하기 위해 치킨을 주문한다. 그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가 싶었는데... 치킨 배달이 늦어지며, 승우는 예상치 못한 감정의 격랑을 마주하게 된다.

등장인물

승우
소희
치킨집 사장
라이더
옆집 여자

1 6차선 도로 앞 길. 초여름 저녁

퇴근길 자동차로 꽉 막힌 6차선 도로.
그리고 그 옆길에 우뚝 서 있는 나홀로 아파트(삼호아파트) 전경,
그 위로 메인 타이틀 <치킨이 뭐라고> 떠오른다.

#2. 집, 거실. 저녁

승우네 집 거실 벽시계의 초침이 숫자 11을 지나 12로 이동하면, 분침도 덩달아 12를 가리킨다.
저녁 7시 정각. 승우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모바일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소파 앞 거실 테이블엔 먹다 만 감자칩 봉지와 찌그러진 맥주 캔 한 개가 널브러져 있고,
부엌 싱크대엔 점심에 라면 끓여 먹고 대충 치운 그릇들이 쌓여있다.

한참 쿠키런에 열중하고 있는 승우, 스테이지 클리어 직전...!
지이잉- 지이잉- 때마침 휴대폰 진동이 울린다. 아내 소희로부터 온 전화다.

승우 : 응 자기야, 이제 퇴근이야? 늦었네?

소희(V.O) : ...오빠...

승우 : (몸을 일으키며) 목소리가 왜 그래?

소희(V.O) : 너무 힘들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김밥 한 줄 먹은 거 있지...

승우 : 바빠도 밥은 제대로 먹이면서 일을 시켜야지. 거 참.

소희(V.O) : 오빠는?

승우 : 저녁? 자기 오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지.

소희(V.O) : 오십 분 정도 후면 도착할 거 같은데 맛있는 거 해주면 안 돼?

승우 : ...음...그럴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승우. 냉장고 안쪽을 살피는데, 먹을 게 마땅치 않다.

승우 : 어찌지? 장 보는 걸 깜빡했네...

소희 : 너무해. 쉬는 날이라고 땡굴거리기만 했구나?

승우 : 미안미안...대신 내가 자기 좋아하는 치킨 시켜 놓을게!

#3. 집, 거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소희, 수건으로 머리를 툰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중인 승우. <코미디빅리그>가 틀어져 있다.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터져 나올 때마다 장단 맞추듯 승우 역시 파안대소한다.

소희 : (그런 승우를 바라보며) 아직도 안 왔어?

승우 : 그러게... 왜 이렇게 안 오지?

승우,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면 8시 15분이다. 배달 앱을 켜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승우, 상태창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뜬다.

소희 : 출발은 한 거지?

승우 : (중얼거리며) 한 시간 안에 온다고 했는데...

소희 : ...오빠... 나 너무 배고픈데. 라면 하나만 먼저 끓여 먹을까?

승우 : 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가게에 전화해볼게.

가게에 전화를 거는 승우. 몇 번의 신호음이 이어진 후, 딸깍-

사장(V.O) : 네 '치킨참잘튀기는집'입니다.

승우 : 주문한 지 한참 지났는데 치킨이 안 와서요.

사장(V.O) : 어디시죠?

승우 : 남부순환로 177 삼호아파트 701호인데요.

사장(V.O) :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주문이 밀려들어서요.

지금 포장 중이니깐 금방 보내드리겠습니다.

승우 :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뚝-, 전화 끊은 승우.

소희 : 아직 멀었대?

승우 : 곧 출발한다네. 금방 올 거 같아.

#4. 집,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승우와 소희.

계속 <코미디빅리그>를 시청하고 있다.

박장대소하는 TV 속 관객들과 달리 조용한 승우와 소희.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 시계를 바라보는 승우, 시계는 어느덧 8시 35분을 가리키고 있다.

승우, 고개를 돌려 옆자리 소희를 바라보면,

소희의 표정이 어둡다.

밀려오는 불안감에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떨기 시작하는 승우,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고, 거실 안 다른 소리가 모두 음소거 된 채,

시계의 초침 소리만 귓가에 울려 퍼지는 기분이다. 째깍- 째깍- 째깍- 째깍-.

소희 : 진짜 너무한다.

승우 : ...응?

소희 : 배고파 죽겠다고!

승우 : ...미안해.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어.

소희 : 어디서 시켰어? 맨날 시켜 먹는 BBO에선 이렇게 늦은 적 없잖아.

승우 : 아... 그게, 오늘은 치참에서 시켰어.

소희 : 뭐? 어디?

승우 : 치킨참잘튀기는집...

소희 : 갑자기 왜?

승우 : 오천 원 할인이벤트 하길래...

소희 : 그러니까 당연히 늦지! 오늘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다니까...

고작 몇천 원 아끼겠다고...

승우 : 이렇게 늦을 줄 몰랐지. 예상배달시간 1시간이었던 말이야.

소희 : 하... 참. 궁상맞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승우 : 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냐?

소희 : 오빠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말이 예쁘게 나가겠니?

승우 : 아무리 그래도 그럴쑈...

핑둥-

절묘한 타이밍에 울리는 현관 벨 소리. 인터폰에 라이더의 모습이 비친다.

승우 : 에효, 일단 먹고 이야기하자.

화를 꼭 눌러 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승우.

#5. 현관-아파트 복도.

치킨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1/3 정도 연 승우. 그런데 사람은 안 보이고,
복도 타일 위에 웬 물만 한가득 고여있다.
뭐지? 현관문을 마저 다 여는 승우.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집 앞 그리고 다시 앞집으로 이어지는 물웅덩이를 따라 시선 이동하면,
앞집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아까 벨을 누른 라이더다. 비에 흠뻑 젖어 온몸에서 물이 똑똑 떨어진다.
그리고 곧 문을 열고 나오는 앞집 여자,

앞집 여자 : 빨리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라이더 : 오는 중에 갑자기 비가...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꾸벅)

그 와중에 승우 눈에 들어오는 치킨 포장지. BBO 치킨이다.
앞집 여자가 치킨을 건네받고 들어가자 돌아서는 라이더,
민망한 기색으로 후다닥 승우에게 다가온다.
홀딱 젖은 라이더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어딘가 좀 어리바리해 보이기도 한다.

라이더 :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 일이 처음이라...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승우 : ...비가 많이 내리나 보네요...
라이더 : 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라이더: 실례했습니다. (꾸벅)

급하게 마무리 인사하고, 허둥지둥 계단으로 내려가는 라이더,
몇 계단 내려가기도 전에 빠곳- 미끄러질 뻔한다.
그 모습이 영 불안해 자신도 모르게 라이더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는 승우.

#6. 집, 거실

소파 앞 거실 테이블에 포크와 앞접시를 세팅하고 있던 소희,
빈손으로 들어오는 승우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승우 : 벨을 잘못 눌렀데...
소희 : 하, 참.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탁- 테이블에 내던지듯 내려놓는 소희.

승우 : 소희야...
소희 : 됐어, 그냥 라면이나 먹을래.

신경질적으로 부엌으로 향한 소희, 갑자기 버럭 소리친다.

소희 : 최소한 설거지는 해놔야 할 거 아냐!

승우 : ...

라면 봉지 한 개를 집어 들고,

야무지게 냉장고에서 반쯤 남은 콜라까지 챙겨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소희.

황- 안방 문 닫히는 소리가 매섭다.

승우 : ...소희야, 아무리 그래도 생라면은 좀...

시계는 어느덧 8시 40분을 가리키고...

승우,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잔뜩 인상을 구기며 가게에 다시 전화를 건다.

사장(V.O) : 네, 치킨참잘튀...

승우 : (거의 렵을 하는 것처럼) 여기 남부순환로 177인데요.

사장(V.O) : 아아-, 네 고객님.

승우 : 도대체 언제 오는 거죠?

사장(V.O) :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배달대행이 너무 안 잡히네요...

승우 : 아니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사장(V.O) :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승우 : 지금 치킨이 늦게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장(V.O) : 네...?

승우 :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치킨이 늦게 와서 지금...

사장(V.O) : ...

승우 : 저희 와이프가...

사장(V.O) : ...부인분이...?

승우 : (거의 울부짖으며) 생라면을 부숴 먹고 있다고요!!

사장(V.O) : ...저런...죄송합니다.

승우 : 죄송하다면 다예요? 사장님이 직접이라도 가지고 오셔야죠! 10분 내로 오세요.

안 그러면, 저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 지금 무지 화났거든요?

사장(V.O) : ...네...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른 가져다드릴 테...

똑- 사장이 말을 맺기도 전에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승우.

곧, 지이잉-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린다.

치킨집 사장에게서 온 메시지다.

“고객님,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직접 출발하니 넓은 아량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민망함과 짜증이 동시에 밀려와 머리를 쥐어 짜며 소리치는 승우.

승우 : 아오-! 이깟 치킨이 뭐라고!!

#7. 집, 거실

TV도 꺼져있고, 정적만 흐르는 거실.

승우, 텅 빈 표정을 한 채 소파에 걸터앉아 있다.

시간은 8시 50분. 시간을 확인한 승우, 쓴웃음을 짓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뭔가 결심한 듯 다시 핸드폰을 집어 들려던 찰나,

때마침 빗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오토바이 엔진음, 부우웅-

소리가 들려오는 창가 방향으로 고개 돌리는 승우.

그리고, 곧이어 이어지는 충돌음. 끼익- 핑!

승우, 문득 덮쳐오는 불길한 기분에 베란다 너머로 달려가 밖을 살핀다.

승우의 표정은 점점 얼어붙고,

떨리는 손으로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승우 : 여기... 남부순환로 177 삼호아파트인데요. 바로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배달 오토바이가 화물트럭이랑 부딪힌 거 같아요!

승우의 호들갑에 놀라 방 밖으로 나온 소희.

소희 : 무슨 일이야?

그러나 소희에게 대꾸할 생각도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승우.

소희 : 오빠, 왜 그래?!

#8. 아파트 복도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오는 승우.

그와 동시에 열리는 7층 엘리베이터 문, 그리고 그곳에서 내리는 한 남자, '치참' 사장이다.

승우 사장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를 탈 뻔하지만,

자기네 집 현관으로 몸을 돌리는 사장을 보고 순간 멈칫한다.

사장의 동선을 따라 천천히 돌아가는 승우의 고개.

사장이 현관 벨을 누르려던 찰나.

조심스레 사장의 어깨를 툭툭 치는 승우.

승우 : ...치참 사장님?

사장 : 아, 네. 전화 주신 분...?

승우 : (어안이 병병한 표정으로)...네...

사장 : (사람 좋은 미소 지으며)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콜라 서비스로 드렸어요. 맘 풀어주세요.

승우 : 아...네...

사장 : 그럼 맛있게 드세요.

인사를 마치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는 사장.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던 찰나,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채 서 있는 승우와 의아한 표정의 사장.

승우 : 사장님...
사장 : 네?
승우 : 안전운전 하세요...

#9. 집, 거실

한 손엔 치킨, 다른 손엔 콜라 봉지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 들어오는 승우.
소파에 앉아 있던 소희가 일어나 물끄러미 승우를 바라보다 입을 떼다.

소희 : 뭐야, 치킨 받으려고 그렇게 뛰어나간 거야?

그리고 대답 대신 울려 퍼지는 소리. 꼬르륵-. 승우의 배에서 난 소리다.
소희, 승우의 꼴이 우스운지, 풋- 하고 웃음을 터트린다.

소희 : 아깐 화내서 미안해. 얼른 먹자.

말없이 거실 테이블로 가 치킨을 세팅하기 시작하는 승우.
소희도 옆에서 거든다.

잠시 후, 기분 좋게 닭다리 하나를 집어 승우의 입가에 가져다주는 소희.
곧바로 자기 닭다리도 하나 집어 든다.
닭다리를 한입씩 베어 문 두 사람,
동시에 서로를 돌아본다.
순간 일그러지는 두 사람의 표정...

소희 : (한 손에 여전히 닭다리를 든 채) 너무 눅눅해...
승우 : (통명스럽게 닭다리를 내려놓으며) 에이-씨.

잠시 옆에 둔 핸드폰을 바라보며 무언가 고민하는 승우,
이내 단념한 듯, 한숨을 푹 쉬곤 빈 컵에 콜라를 한가득 따라 별걱별걱 들이킨다.

-끝-